



회원사 동정

데이콤, STM등 4개사 공동으로 EDI변환처리 S/W 개발 정부의 제조업경쟁력 강화 개발과제 일환 채신부 정책자금 지원

데이콤, STM, 금성정보통신, 삼보컴퓨터등 4개사가 공동으로 "EDI 변환처리 S/W"를 개발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1년에 시행된 정부의 제조업경쟁력 강화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채신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91년 8월부터 시작되어 오는 31일까지 시행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데이콤이 무역자동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최근 각사가 개발한 단위모듈의 통합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S/W는 개인컴퓨터의 운영시스템인 MS-DOS나 MS-WINDOWS는 물론 UNIX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되게 개발되었으며 EDI표준 데이터베이스 검색뿐만 아니라 응용시스템과의 연계와 통신처리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S/W는 특히 EDI서비스 가입자들이

네트워크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S/W의 각종 기능을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법으로 처리한게 특징이다.

이들 업체는 공동개발한 EDI변환처리 S/W가 한국EDIFACT위원회가 국내표준으로 제정, 권고하고 있는 규격을 수용하고 있어 무역자동화 부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TM, 태국 SGS사의 통합생산관리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해외SI시장 공략에 박차

(주)STM(대표 : 金永泰)이 태국 SGS(Srithai Gold Star)사의 통합생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SI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나섰다.

STM의 첫 해외 SI프로젝트 수주로 기록된 이번 계약에 따라 STM은 SGS에 생산, 자재소요, 구매관리, 제조관리, 공정관리, 수주출하관리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입찰에는 태국의 2개 SI업체도 참여하여 경쟁을 벌였는데 STM이 자체 개발한 MRP(Manufacturing Resources Planning) 시스템인 Pro-KEY가 업무효과와 납기, 기술등에서 우위를 보여 STM이 최종 선정되었다. SGS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동화의 진전과 재고 감소, 제품의 납기준수가 용이해져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GS는 금성통신과 일본, 태국이 '88년에 합작설립한 키폰 및 일반전화기 제조업체로서 그동안 제품전량을 미국에 수출해오다가 작년부턴내수를 시작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SGS는 3단계 정보화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재고관리와 소요량 파악을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이번 1차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생산시스템의 기반을 바탕으로 영업정보와 생산정보를 통합하는 2단계 작업, 완벽한 CIM체제의 구축을 위한 3단계 작업을 차례로 진행시켜 나갈 방침

이다.

그 동안 사우디, 미국등지에 대한 인력지원과 국제VAN서비스등의 해외사업을 벌여온 STM은 이번 태국 진출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SI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에도 진출하여 국내영업 확대와 병행한 과감한 영업전략을 구사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동남아시아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한 현지법인 및 합작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화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STM은 1년전부터 시스템의 영문화작업등을 통해 전략서비스 상품을 준비하는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비해왔다.